

# 50+세대 삶 · 인문가치 공유

전북문화관광재단, '삼삼오오 나눔활동' 인문활동그룹 지원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신청접수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진, 이하 재단)은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에 참여할 장·노년 세대의 인문활동 그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은 선행적 경험을 가진 장·노년층이 삼삼오오 모여 개인·세대·공동체·지역 간의 문제를 발견하고, 인문적 방식으로 해결·공유하는 소규모 인문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7월 6일까지다. 모집 대상은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에 거주하며, 50세 이상이 50% 이상 소그룹(3~5명)을 구성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총 30개 그룹을 선정해 최대 200만원(그룹 당)을 지원한다.

선정된 그룹은 8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활동을 공유하고, 완료된 후에는 결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공모는 '세대공감-공유형'과 '자아·사회변화형' 유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세대공감-공유형'은 다른 세대와의 차이, 단절 등의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서로의 간격을



지난해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

좁혀나가기 위한 활동이며, 소통·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방식의 인문활동이다.

'자아·사회변화형'은 삶의 경험을 기반으로 일상·주변의 소소한 문제부터 지역사회에 이르는 주제까지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실천 활동이다.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문제,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활동도 이에 포함된다.

지원 방법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3355life@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입진아 문화사업팀장은 "지역사회 자원으로 50+세대가 가진 역량과 경험이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문화사업팀(063-230-7445~6)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순창, 울여름 HOT한 관광지 되다

관광공사 선정 '강천산 단월야행 · 체계산 출렁다리'

순창 체계산 출렁다리와 강천산 단월야행이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된 '여름시즌 숨은 관광지' 6곳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올 여름 시즌 '거리 두고 떠나기 좋은 숨은 관광지'는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4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추천받은 855곳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됐다.

전국 6곳중 전북은 유일하게 순창 1곳만 선정됐다. 올 3월에 개통한 순창 체계산 출렁다리는 무주담 산악현수교로 길만 270m나 돼 현존 최장거리를 자랑한다. 높이 또한 지상에서 75~90m로 다리위에서 내려다보는 아찔함에 젊은 층들도 출렁다리를 많이 찾고 있다.

한옥정자, 어드벤처 전망대 등 각각 다른 시점에서 바라보는 섬진강과 적성 들녘 풍경도 체계산 출렁다리를 찾는 매력 포인트중 하나다. 입장료는 무료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개방한다. 주차장 인근에 조성된 농특산물 직판장에서는 청정 순창에서 나오는 친환경

농산물과 각종 특산물도 만나볼 수 있다.

체계산 출렁다리와 함께 숨은 관광지로 뽑힌 강천산 단월야행은 강천산의 밤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지난해 8월부터 군이 야간개장을 시작했다.

강천산 단월야행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최초의 국문소설 설공찬전을 각색한 스토리에 화려한 조명과 AR영상기술을 이용해 구간 곳곳에 미디어 쇼를 관람할 수 있다. 관람구간은 강천산 입구부터 천우폭포까지 1.3km이며, 어린이들도 친숙하게 느낄 도깨비와 용 등의 캐릭터를 활용해 만족도가 높다.

입장료는 성인 3천원, 초·중·고교생 2천원이며, 만 6세 이하이거나 만65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다.

조태봉 문화관광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체계산과 강천산 말고도 순창의 숨겨진 관광지를 적극 발굴해 순창이 전북을 대표하는 여행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강천산 단월야행(왼쪽)과 체계산 출렁다리.

# 절기 · 풍속에 맞게... '한식요리 원데이클래스' 개설

국제한식조리학교, 총 4회 진행

국제한식조리학교(학교장 민계홍)는 원데이 클래스 강좌를 개설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 강좌는 절기와 풍속에 걸맞은 한식요리 클래스로 ▲여름을 건강하게 나는 속 양념 절편 만들기- 단오편 ▲여름을 이겨내는 임자수탕 만들기- 초복 편 ▲여름을 물리치는 모시 송편 만들기-중복 편 ▲여름을 마무리하는 초계탕 만들기- 말복 편으로 총 4회 진행된다.

특히 각 클래스당 20명씩 선착순으로 원데이 클래스 무료수강권도 증정한다.

민계홍 학교장은 "무료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잊혀져 가는 한국 고유의 음식문화를 체험하며 우리고유 절기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을 계승하고 함께 공유하는 한식교육 전문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한식조리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대가 공동 설립해 공신력을 갖춘 교육기관이다. 현재 국제한식조리학교는 2020학년도 2학기 정규과정 신입생을 모집하며 단과반으로 ▲한식 고급과정 ▲제과과정 ▲김치 교육과정 ▲떡 제조기능사 자격증반 과정 등을 운영 중이다.

교육 커리큘럼 및 학사일정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으로도 실시간 입학상담이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 '진안의 동학혁명 · 기념사업의 방향'

군, 학술연구 세미나

진안군이 주최하고,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진안의 동학농민혁명과 기념사업의 방향' 학술연구 세미나가 지난 11일 오후 2시 진안 산악초전사관 2층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진안군에서 추진 중인 진안의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 용역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군은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상대적으로 조사·연구자료가 부족한 진안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건과 인물, 역사적 의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학술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용업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의 '진안의 동학농민혁명과 전봉준 장군 후손의 삶'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 세미나에서는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의 '진안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과 인물', '신순철 원광대 명예교수의 '진안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과제' 등 주제발표를 통해 진안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역사적 사실과 그 규명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어 발표된 원도연 원광대 교수의 '진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방향성과 추진체계', 디자인 룬 이인숙 실장의 '진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간과 기념시설 조성방향'에서는 진안에서 있었던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기리고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과 공간 등에 대한 의견이 제안되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문병학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념사업부장, 최규영 진안향토사연구소

장, 김완식 진안군 문화체육과 문화재팀장, 박정원 도시계획사무소 UB 대표 등이 참석하여 진안의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종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군은 이번 세미나와 학술연구용역에서 정리된 내용을 종합하여 향후 진안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과제 발굴과 유적정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빛나는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장수문화원은 '2020년 장수 빛나는 오케스트라'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신규 단원 모집 대상은 장수에 주소를 둔 초 3~6, 중 1~2학년 까지며 모집파트는 더블베이스 2명, 클라리넷 1명, 호른 1명, 바순 1명, 트럼본 1명, 오보에 1명, 타악기 3명 총 10명이다.

심사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으로 진행되며, 서류 접수는 4일부터 장수문화원(장수읍 한누리로 393 한누리전당 기합관 3층)에서 받고 있다. 접수기간은 파트별 모집인원 총합할 때 까지로 신입단원 지원서는 장수군청 누리집(www.jingsu.go.kr) 공지사항에서 받아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문화원(351-5349)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 합격할 경우 악기와 교육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